

# 순도 높은 사랑의 능력 (요한복음 20장 15-20절) \_ 학부모 가이드

**G***Guide for Thinking*

1. 일반적으로 금의 순도는 14/18/24K로 구별합니다. 14K는 약 58.5%, 18K는 75%, 그리고 24K는 99.9%의 순도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순도는 몇 K인가요?

→ 금의 순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24진법을 사용합니다. 24K 금은 24/24이기 때문에 수식으로는 100% 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100% 순도의 금은 없기 때문에, 99.9%의 순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4K는 14/24이기 때문에 약 58.5%, 18K는 18/24로 약 75%의 순도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와 제자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며, 24K 순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장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 등의 말씀을 볼 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및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여러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등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여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장사된 돌무덤을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3.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각각 무엇인가요?(16, 20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16절에서 마리아는 '랍오니'라는 외마디 탄성을 내뱉습니다. 이 표현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대상을 위한 것이며, 마리아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놀랍고도 경이로운 마음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읽을 수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4.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순도가 높을 수록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배의 시간이 기쁨으로 기다려집니다. 나는 예배의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들처럼 사랑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시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순도가 높은 만남일 수록 기쁨과 그로 인한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누구보다도 강력하고도 순전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도 높은 사람이며, 그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